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국내 학술지 연구동향 탐색

Exploring research trends
on the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in Domestic Journals

박옥현*

오영섭**

Park, Ok-hyun Oh, Young-sub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by exploring the research trends on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For this, 39 papers were selected from KCI-indexed journal papers, and the research status,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cont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related research started in 2011 and peaked in 2018, but has recently been on a downward trend and has been published in 27 various journals. Second,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a large number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and from foreign families who were born abroad. Third, as for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were 56.1% and 39.0% respectively. Fourth, the contents of the study were in the order of society/culture, school, individual, and fami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uture research tasks and suggestions on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were provided.

주요어 :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 연구동향.

Keyword : immigrant Adolescents, adaptation, research trends.

I. 서론

많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합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주민은 2,146,748명으로 총인구의 4.1%에 달한다. 특히 '외국인 주민의 자녀¹⁾'는 66,321명에 이른다(행정안전부, 2021). 한편 다문화 학생²⁾ 수는 전체 학생 수의 3.0%(160,056명)로 2020년 대비 8.6%(12,678명) 증가하였다(교육부a, 2021). 저출산의 영향에 따라 일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가정이 증가하며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

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³⁾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 중 10대 전후부터 20대에 속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인구감소,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감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에 고무적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은 성장기 청소년의 발달과업은 물론이고 이주민이 경험하는 인종, 종교, 민족, 문화 등의 다름으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다(김은경, 김현주, 2017: 246). 특히 부모의 재혼으로 중도에 국내로 입국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본국에서 가정해체, 분리나 고립 등의 경험과 더불어 국내에서 새로운 가족, 학교, 사회 등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등에 따라 일반 이주배경 청소년보다 큰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있다(양미진, 고희월, 김영화, 이동훈, 2012; 오승환, 좌현숙, 2015). 한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부단한 노력과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김민아, 이재희, 라미영, 김기현, 2014: 150), 중도입국 청소년은 외국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국내로 입국하여 새로운 가족에 합류하고, 낯선 사회·문화 등을 익혀야 한다. 즉 이들은 가정

3) 위의 '이주배경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 정의를 따른다.

* 주저자(교신저자) : 인하대학교 BK21FOUR 연구원.
ok8428@naver.com

** 공동저자 : 인하대학교 BK21FOUR 연구교수.

1) 외국인주민자녀 (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행정안전부, 2021).

2) '다문화 학생'은 매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교육기관(2021년 23,576개)과 관련된 교육분야 기본 사항을 조사·발표하는데 이에 따른다(교육부 교육기본통계, 2021.8.26).

에서부터 학교, 사회·문화까지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해결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국내 입국 전은 물론이고 입국 후 이들의 삶을 이해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가정, 학교, 사회 등에 적응하도록 지원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초점을 맞춘 다양하고, 균형있는 연구 또한 중요하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동향을 보면, 다문화가정 유아(윤갑정, 손환희,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박병금, 2020), 탈북청소년(박언하, 2019; 박언하, 2020; 정하은, 2015), 이주배경 청소년(이정섭, 왕금미, 2021) 등이 있다. 윤갑정 외(2018)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2010년 이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양적연구가 가장 많고, 내용을 보면 심리차원의 적응보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적응이 많음을 적었다. 이를 토대로 윤갑정 외(2018)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추후에는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심리·사회적 적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박병금(2020)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2007년을 시작으로 2018년 급증하고 있고, 연구방법은 주로 조사연구를 통한 양적 연구방법이었으며, 적응 유형으로는 학교적응 특성, 사회·문화적응특성 순으로 많음을 밝혔다. 향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 적응과 가족 적응을 위한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하여 정하은(2015)은 2001부터 2014년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특히 박언하(2019)는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동향분석에 이어 논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박언하, 2020)을 적었다. 특히 이정섭 외(2021)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한 학교부적응 요인과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현장 실무자인 연구자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따른 정서상 어려움을 예방·점검하는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현재까지 발표된 이주배경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동향에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유아(윤갑정 외,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박병금, 2020), 이주배경 청소년(이정섭 외, 2021) 등이 있는데, 특히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다수의 연구 동향 분석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언하, 2019; 박언하, 2020; 정하은, 2015). 반면 2000년대부터 결혼이주민과 동반입국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는 꾸준한데(교육부a, 2021), 그 정의와 명칭 등에 있어 정부 부처와 학계의 의견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적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 동향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한편 2021년 여가부는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분야의 연구 동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여 다문화 사회

화에 따른 한국 학계의 적응 또한 파악하며,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중도입국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은 다문화가족⁴⁾의 청소년⁵⁾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하는데, 이들 중에 중도입국 청소년이 포함된다.

<표 1> 舊-新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

舊 유형	新 유형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탈북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제3국 출생 탈북배경청소년*
	남한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포괄적 파악과 유형별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단위의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본 실태조사⁶⁾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은 기존 5개 유형에서 새롭게 7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 유형은 첫째,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둘째,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셋째,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넷째,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자녀, 다섯째, 북한출생 청소년, 여섯째,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일곱째, 남한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이다. 이들 중 '중도입국 청소년'은 둘째,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⁷⁾와 여섯째,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⁸⁾이 해당

4)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5) 청소년은 "만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한다"(「청소년기본법」제3조).

6) 본 실태조사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맡아 본 연구를 수행한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0).

7)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어느 정도 성장 후 한국에 입국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들 중에는 귀화를 통한 한국 국적자와 외국

된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0).

또한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을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의 자녀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인 '중도입국 자녀'를 모두 포함한다. 전체 다문화 학생 중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이 76.3%(122,093명)로 가장 많고, 외국인가정이 17.8%(28,536명), (중도입국) 국제결혼가정이 5.9%(9,427명) 순으로 많다(교육부a, 2021). 특히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는 본국에서 성장하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 국내로 데려온 경우 또는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을 말한다. 교육부가 밝힌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은 첫째, 한국문화와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둘째,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셋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며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교육부b, 2021:25) 등이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다문화 학생 중 중도입국 자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는데, 2012년 4,288명을 시작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9,427명에 달한다. 특히 초등학생 중도입국 자녀는 2019년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중·고등학교와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자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교육부a, 2021).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전혼 관계에서 태어나 국내에 입국하는 '중도입국 자녀'는 주로 방문동거자격⁹⁾ (1,901명, 48.2%)이나 거주자격¹⁰⁾ (1,871명, 47.5%) 등으로 입국하는데¹¹⁾, 이들 중 일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교육부, 여가부 등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법무부, 2019). 예컨대 이는 주로 방문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등의 형식으로 입국하여 공교육에 진입하지 않거나 귀화신청을 하지 않고 머무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정세진 외, 2018: 26)는 학계의 보고와 일치 한다.

국적자가 모두 존재하며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불리기도 한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0).

- 8)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은 "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인인 경우인데, 이들은 남한과 북한 이외의 제3국에서 출생한 특성을 보이며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범주화되기도 한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0).
- 9)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되지 않은 미성년 외국인 자녀(F-1-52).
- 10)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된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 11) 2019년 10월 기준, '중도입국 자녀'는 3,938명(귀화자 6,871명 제외)이다.

한편 이들은 베트남, 중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며, 연령 별로는 11~15세가 34.5%로 가장 많고, 16~18세는 25.8%, 6~10세는 26.6%, 0~5세는 13.1% 순으로 많다(법무부, 2019: 10).

결론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은 2000년경부터 국제재혼가정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결혼이주여성이 전혼관계의 자녀와 동반 입국하며 나타나기 시작하여(정희정, 김소연, 2014: 833), '중도입국 청소년', '중도입국 아동', '중도입국 자녀' 등으로 불린다(전경숙, 2016: 6). 예컨대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명칭은 정부 부처간 일치하지 않으나¹²⁾ 정의에 있어 일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 공통점은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은 해외 성장 경험이 있고(교육부b, 2021; 여성가족부, 2020), 둘째, 본인이 국내로 이주하였으며(교육부b, 2021; 여성가족부, 2020), 셋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 사회적응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교육부b, 2021; 법무부, 2019)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공통점을 지닌 청소년을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2.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

중도입국 청소년은 출생 국가에서 성장하다 국내로 입국하는 청소년인데, 출생국에서 이미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였기에 분명히 다른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특성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정세진, 윤희미, 정다영, 박설희, 2018: 27). 따라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응'이란 매우 중요하다.

생물 생태학의 기본 개념인 적응(適應, adaptation)은 생물이 생존을 위해 서식 환경에 유리하도록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모든 생물은 적응의 과정을 통해 생태적 지위를 확보하고 생존한다(장문강, 2008: 200). 한국으로 이주하여 삶에 적응해야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또한 다르지 않다. 이주민의 적응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른데, Berry(1992)는 '심리적 문화적응'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새로운 환경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적응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주민의 적응 유형을 개념화하여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sation)의 2차원 4종 모델¹³⁾을 제시하였다(Berry, 1997). 이러한 적응 유형은 이주민만의 선택이 아니라 주류 사회와의 상호관계에서

12) 참고: 외국인주민의 자녀(행정안전부), 중도입국자녀(교육부, 법무부), 중도입국청소년(여성가족부).

13) 위를 설명하면, 통합(integration)은 원문화에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주사회에 참여를 추구하는 유형, 동화(assimilation)는 이주문화와 상호작용을 추구하나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유형, 분리(separation)는 동화와 반대로 원문화에 정체성을 두고 이주문화에 소극적인 유형, 주변화(marginalisation)는 원문화의 유지도 약하고 이주문화와의 상호작용에도 소극적인 유형을 말한다(최혜지, 2009: 166-167).

이루어지는데, 이주민의 사회적응은 상호 간의 역할과 입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김현민, 2021: 117-119). 예컨대 이주를 통해 삶을 개척하려는 성인 이주민의 적응과 준비되지 않은 비자발적 이주가 많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은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아동은 발달에 있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 따라서 이는 아동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사회적 맥락으로 개념화한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을 둘러싼 생태체계는 개인의 일상적 환경이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대인관계의 패턴을 의미하는 미시체계(microsystem), 개인이 포함된 둘 이상의 맥락 간에 일어나는 결합과 과정으로 구성된 중간체계(mesosystem), 다수 맥락 사이의 결합과 과정이나 중간체계와는 다르게 개인이 포함되지 않는 외부체계(exosystem), 미시, 중간, 외부체계를 아우르는 하위문화 또는 특정 문화를 일컫는 거시체계(macrosystem)로 구성되어 있다(김태한, 전영욱, 2021: 82-83). 이를 반영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을 연구한 박봉수(2013)는 Berry(2002)의 문화적응 과정과 청소년의 사회화 기관인 가정, 또래, 학교, 미디어, 대안교육기관을 기반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화 경험을 적었다.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연구한 오영섭(2019) 또한 Bronfenbrenner(2005)의 인간발달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등을 기반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오영섭, 2019: 21-22).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 차원부터 사회-문화 차원까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해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 차원에서 볼 때, 만 9세~24세에 속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다. 주로 초기 또는 중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며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인 모든 문제를 직면하고 경험하는 시기에 있고, 현실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느낌이나 평가인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주요 발달과업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다(박옥현, 2017: 13; 신명희 외, 2011: 66). 특히 부모에게 독립을 추구하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있는 재혼 가족에게 중요한 가족 응집력과 충돌하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최영미, 송영호, 2020: 196-197).

가족 차원에서 보면, 국내에서 나고 자란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다르게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어 습득이나 한국문화이해 등에 대한 준비없이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이들은 부모와의 오랜 소통단절로 인한 원망과 분노가 청소년기의 특성과 맞물려 반감이 표출되기도 한다. 덧붙여 부모의 재혼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

통의 어려움 또한 갖고 있다(석희정, 하춘광, 2015: 2-3).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가족생활 적응의 어려움은 이중, 삼중의 고난이 될 수 있다.

학교 차원으로 보면, 학령기에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국내 이주와 함께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데(이병철, 송다영, 2011), 학교생활에 있어 부적응이 발생한다(김민아 외, 2014; 남미연, 오현주, 최광성, 2020; 이유신, 김한성, 2014). 특히 학교 부적응의 원인은 교육과정, 교과과정의 단원구성, 학년별 영역별 내용 체계, 학습어휘 등의 차이 등이 제기되고 있다(남미연 외, 2020). 중도입국 학생은 학교진입의 어려움과 함께 학생에 대한 교사의 낮은 인식을 경험하고 있는데, 김민아 외(2014)는 이의 해결 방안으로 학교의 협력적인 적응지원을 제안하였다. 비록 중도입국 청소년이 학교에서 차별과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으나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유신 외, 2014).

사회-문화 차원의 적응이란 이주국의 문화를 학습하거나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것(김영순, 박봉수, 팜티헨짱, 2012: 44)으로 이주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이다. 특히 이는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상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이주국 언어의 유창성으로 추후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주요 지표로 밝혀진 바 있다(양계민, 조혜영, 2012: 198). 이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절차와 대상

2000년대 이후 이주민의 증가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정부 부처와 학계의 관심은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준 검색어는 '중도입국', '적응'으로 하였다¹⁴⁾. 본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국내 학술지 논문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학위논문은 학술지 논문과 중복 가능성이 크다(박연하, 2019: 402). 이를 감안하여 학위 논문을 제외하고, 학계에서 검증을 거친 한국연구재단(KCI: Korea Citation Index) 등재(후보)지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위 검색 결과에는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과는 직접 연관이 적은 논문(총 119건 중 불일치 80건)도 함께 검색되었다. 이러한 논문은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 제거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총 39건의 학술지 논문을 선정하고 최근 연구를 포함하기 위해 2021년 12월 24일까지 보완하였다.

14) 기준 검색어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는 '다문화', '이주배경'은 학계의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제외하였다.

2. 분석기준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본 연구의 분석기준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이주배경', '다문화', '중도입국', '탈북', '제3국'을 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에서 검색하였을 때, '적응'이 포함된 연구 동향을 찾을 수 있었다(박병금, 2020; 박언하, 2019; 박언하, 2020; 윤갑정, 2018 ; 이정섭 외, 2021). 이에 윤갑정 외(2018) 등 기존의 적응 관련 연구동향 논문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분석 준거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표 2> 탐색적 연구의 분석기준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 기간), 연구 수	분석기준
윤갑정, 손환희 (2018)	다문화가정 유아 (2006-2017), 41건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적응개념, 접근법
박언하 (2019)	탈북청소년 (2010-2019), 37건	연구분야, 연구주제, 연구방법
박병금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 (2007-2018), 94건	연구현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이정섭, 왕금미 (2021)	이주배경 청소년 (2006-2021, 52건)	기본정보,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우선 분석 틀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분석기준-연구현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설정하고, 위 분석기준에 맞추어 선정된 39건의 연구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3. 분석 방법

첫째,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현황은 선행연구(박병금, 2020; 박언하, 2019)를 기초로 하여 학술지의 발행연도와 발행기관으로 구분하였다. 하위 범주로 발행연도별 연구 편수와 빈도를 구분하였고, 발행기관별로 각각의 편수와 최다.최하 편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연구별 연구대상은 규모와 중도입국 청소년 이외의 연구 대상이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건강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중도입국 청소년뿐 아니라 주변인 또한 호응함이 옳다는 연구자의 견해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연구대상은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 제시된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학계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셋째,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박병금, 2020; 박언하, 2019; 윤갑정 외, 2018)를 기초로 하여 4개 범주(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동향분석(analysis of research trend)은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형성된 준거 틀에 따라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연구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방법인데, 이를 위해 기존의 분석틀을 기반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논문들을 분석하여 결과를 창출하거나 귀납적인 방법에 기반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결과를 창출한다(김수민, 김영순, 2019: 477). 이에 박병금(2020)을 기초로 하여 세부 영역인 개인,

가정, 학교, 사회문화 차원 등을 알아보았다.

IV. 결과

1. 연구현황

1.1 연도별 연구현황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하여 연도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학 포기, 중도포기 등과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이병철 외, 2011). 이후 등락을 보이며 관심이 지속되어 2018년 총 8건으로 정점을 보인 후 학계의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연구현황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
1	6	4	4	1	2	4	8	2	4	3	39	
2.6	15.4	10.2	10.2	2.6	5.2	10.2	20.5	5.2	10.2	7.7	100	

1.2 발행처별 연구현황¹⁵⁾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게재된 학술지는 총 27곳으로 다양한 학회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학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4건(김민아 외, 2014; 김화영 외, 2021; 양계민 외, 2012; 좌동훈, 2014)을 게재하였다. '학교사회복지(석희정, 하준광, 2015; 이유신 외, 2014; 정세진 외, 2018)'와 '다문화교육연구(남미연 외, 2020; 류방란, 오성배, 2012; 박성옥, 2016)'는 3건의 연구를 게재하였다.

2. 연구대상

분석기준은 연구대상의 규모, 연구대상의 직·간접¹⁶⁾ 참여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적응'이란 본인의 노력 못지않게 주변인의 노력 또한 중요한데, 연구대상으로 주변인의 참여를 알아봄에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학계의 적응 정도 또한 알아보았다.

- 15) 청소년학연구(4건)/ 학교사회복지, 다문화교육연구(3건)/ 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 이중언어학, 인문사회 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GRI연구논총(2건)/ 가족자원경영과정, 다문화사회와교육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다문화와평화, 디지털융복합연구, 사회이론, 언어와문화, 열린교육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지역과문화, 청소년상담연구, 청소년복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한국어교육, 한국융합학회논문지, 한국청소년연구, Andragogy Today (1건).
- 16) 연구대상에서 '직접'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간접'은 주변인을 일컫는다.

<표 4> 연구대상의 규모, 참여 형식 및 유형

	연구자(발표 연도)	연구대상(단위: 명)		중도입국 청소년의 유형
		직접	간접	
1	이병철, 송다영(2011)	청소년 7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2	류방란, 오성배(2012)		교사 18	
3	양계민, 조혜영(2012)	청소년 403		귀화신청, 부모동반 입국
4	양미진, 고흥월, 김영화, 이동훈(2012)	청소년 10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6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4
5	김민정, 김선희(2012)		실천가 7	
6	조혜영(2012)	청소년 14	모 3/전문가 8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10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4
7	김영순, 박봉수, 팜티헨짱(2012)	청소년 5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8	박봉수, 김영순, 최승은(2013)	청소년 3	부/모 2/3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9	한은진(2013)	청소년 16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10	박선웅, 우현정(2013)	청소년 12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11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1
11	엄명용(2013)	청소년 9	부/모 1/5, 교사 1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12	좌동훈(2014)	청소년 187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13	김민아, 이재희, 라미영, 김기현(2014)		실무자 27	
14	신영권(2014)		청소년 207	국내출생 일반청소년
15	이유신, 김한성(2014)	청소년 141		중도입국청소년
16	석희정, 하춘광(2015)	청소년 11	모 11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17	박성옥(2016)	청소년 51(설문) / 8(심층)	현장전문가 5(심층)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7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1
18	조형숙(2016)	청소년 22	강사 2, 멘토2	중도입국청소년
19	남부현, 김지나(2017)	청소년 5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20	권보근, 장인실(2017)	청소년 15	(교사,학부모)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9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6
21	이형하(2017)	청소년 6,079		중도입국청소년
22	박미정(2017)	다문화 191	비다문화 320	국내출생 일반청소년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23	김미강(2018)	청소년 82		외국 성장 경험
24	권구택a(2018)	청소년 112		중도입국청소년
25	조형숙(2018)	청소년 5	모/실무자 4/8	외국 성장 배경
26	권구택b(2018)	청소년 123		중도입국청소년
27	남부현, 김경준(2018)		부/모 1/5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조선족)
28	윤티탄프영, 김기화(2018)	청소년 5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베트남)
29	정세진, 윤혜미, 정다영, 박설희(2018)	청소년 268		중도입국청소년
30	김미강, 김영주(2018)	청소년 77		중도입국청소년
31	김수영, 이상규(2019)	청소년 120		중도입국청소년
32	김송설(2019)	청소년 7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5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2
33	남미연, 오현주, 최광선(2020)		△(문헌)	
34	김민경(2020)	청소년 6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35	최영미, 송영호(2020)	청소년 13		중도입국청소년
36	전경숙(2020)	청소년 10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6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4
37	서은주(2021)	청소년 279		중도입국청소년
38	이양금, 임진숙(2021)	청소년 25		중도입국청소년
39	김화영, 하정희, 이은지 외(2021)		△(문헌)	

또한 학계가 인식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주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 제시된 이주배경 청소년의 7개 유형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논문의 초록과 본문을 상세히 점검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하였으나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적었다. 한편의 논문에 다른 유형의 연구대상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각각 확인하여 나누어 적었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대상의 규모는 다양하였다. 질적연구방법 연구대상의 최소 규모는 5명(김영순 외, 2012; 남부현, 김지나, 2017; 박봉수, 김영순, 최승은, 2013; 윙티탄프영, 김기화, 2018; 조형숙, 2018)에서 최대 27명(김민아 외, 2014)까지 있었고, 양적연구방법 연구대상의 최소 규모는 27명(이양금, 임진숙, 2021)에서 최대 6,079명(이형하, 2017)까지 다양하였다. 한편 자료 수집을 위해 중도입국 청소년을 직접 인터뷰하거나 설문하는가 하면, 부모, 교사, 현장전문가, 강사, 멘토 등 중도입국 청소년의 주변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었다. 연구대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가 참여한 연구 중 부(父)가 참여한 연구는 3건(남부현, 김경준, 2018; 박봉수 외, 2013; 엄명용, 2013)이었다.

본 연구에 선정된 39건의 연구대상에는 중도입국 청소년 이외에 국내출생 일반청소년(신영권, 2014), 국내출생 일반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청소년(박미정, 2017)이 있었다. 이는 학계의 관점이 연구대상에 있어 중도입국 청소년에서 또래 청소년으로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 고무적이다. 한편 연구대상인 중도입국 청소년 중에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권보근, 장인실, 2017; 김민경, 2020; 김송설, 2019; 남부현 외, 2017; 남부현 외, 2018; 박선웅, 우현정, 2013; 박성욱, 2016; 양미진 외, 2012; 조혜영, 2012; 전경숙, 2020; 좌동훈, 2014).

본 연구에 선정된 39건 중 질적 연구방법(23건)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이 연구 참여자로 참여한 경우는 19건에 총 183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¹⁷⁾을 보면, 남자 86명, 여자 75명이었고 초기 청소년(9-14세)은 39명, 중기 청소년(15-18세)은 100명¹⁸⁾, 후기 청소년(19-24세)은 44명이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출신국을 정리하면, 중국(85), 베트남(23), 러시아(17), 몽골(16), 우즈베키스탄(12), 중국-조선족(8), 필리핀(7), 카자흐스탄(3), 태국(2), 키르기스스탄(1), 파키스탄(1), 캄보디아(1), 방글라데시(1), 브라질(1), 스리랑카(1), 우크라이나(1), 일본(1), 인도네시아(1), 한국(1)¹⁹⁾순이었다.

17) 위 183명 중 성별을 명시하지 않은 조형숙(2016)의 중도입국 청소년 22명은 제외하였다.

18) 조형숙(2016), 조형숙(2018)은 연구 참여자의 학령 정보(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밖)를 제시하였기에 이를 중기 청소년에 포함하였다.

19) 선정 논문 39편의 연구 참여자 정보 중 현재 국적

3. 연구방법

사회복지분야의 연구 중 주제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거나 본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을 때 귀납적 방법인 탐색적 연구는 수행된다(천정웅, 2017: 83). 본 연구는 연구방법의 분석기준을 이주배경 청소년의 선행 동향분석을 기본 틀로 하고, 연구방법의 탐색을 위하여 선정된 39건의 초록과 본문을 상세히 점검하고 분석하는 귀납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은 하위 4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덧붙여 한편의 연구에 두 개 이상의 연구방법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연구방법을 각각 확인한 후 복수 처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연도별 연구방법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	%
질적 연구	1	5	4	1	1	2*	2	3	1	3		23	56.1
양적 연구	1	1		2		2*	1	4	1		1	12	39.0
	2			1			1	1			1	4	
문헌 연구										1	1	2	4.9
합계	1	6	4	4	1	4*	4	8	2	4	3	41	100

연구방법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질적연구 23건(56.1%), 양적연구 16건(39.0%), 문헌연구 2건(4.9%) 순으로 많았다. 한편 혼합연구(*) 2건(박성욱, 2016; 조형숙, 2016)이 있었다.

양적연구 16건 중에는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1차 자료(11건)와 기존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4건)가 있었다. 특히 2차 자료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이형하, 2017; 정세진 외, 2018),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이유신 외, 2014), 대학 내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실태 조사(서은주, 2021)이었다. 자료 분석은 주로 빈도,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특히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direction) 또는 강도(strength)가 제3의 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면,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조절(moderate)하는 것은 그 제3의 변수이다(이학식, 임지훈, 2014: 410). 이와 같은 조절효과를 알아본 연구가 4건 있었는데, 문화적응스트레스(권구택a, 2018), 보호요인(이형하, 2017), 사회적지지(권구택b, 2018), 자아탄력성(박미정, 2017)이 그것이다.

한편 질적연구 23건의 하위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질적연구 방법의 하위 범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만인 표시된 경우(최영미, 송영호, 2020)는 그대로 적었다.

<표 6> 질적연구의 하위범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	%
CQR		1										1	4.3
근거이론	1		2		1							4	17.4
사례연구			1		1	1		1				4	17.4
현상학							1	1		2		4	17.4
기타		4	1	1		1		2		1		10	43.5
합계	1	5	4	1	1	2	2	3	1	3	0	23	100

질적 연구방법 23건의 하위범주는 합의적 질적분석(CQR) 1건(양미진 외, 2012), 근거이론 4건(박선웅 외, 2013; 석희정 외, 2015; 이병철 외, 2011; 한은진, 2013), 사례연구 4건(권보근 외, 2017; 김송설, 2019; 엄명용, 2013; 조형숙, 2016), 현상학 4건(김민경, 2020; 남부현 외, 2017; 남부현 외, 2018; 전경숙, 2020), 기타 10건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주로 개별 심층면접과 관찰이었으나 FGI(초점집단면접) 2건(윙티탄프영 외, 2018; 조형숙, 2018) 또한 있었다. 특히 사례연구 4건 중 조형숙(2016)은 총 3회의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례를 기반으로 감사, 멘토, 참여자를 인터뷰하였다.

본 연구에 선정된 39건 중 2건(남미연 외, 2020; 김화영 외, 2021)의 문헌연구가 있었다. 특히 남미연 외(2020)은 한·중 초등수학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부적응의 원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화영 외(2021)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배경중도입국 청소년 심리·사회적응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4. 연구내용

연구 동향을 탐색함에 있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분석 대상이 되는 논문들로 부터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 준거를 도출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도별 연구내용에 대한 분석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내용 분석은 박병금(2020: 377), 오영섭(2019: 22)을 참고하여 개인, 가족, 학교, 사회·문화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차원에는 심리·사회적응, 정체성 형성, 언어·이중언어적응, 사회정체성이 포함되었다. 가족차원에는 가족생활적응으로 가족 재구성·관계·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학교차원에는 학교생활적응, 교육기회와 실태, 학교적응·부적응의 영향요인(위험·보호요인, 교육과정, 다문화배경, 언어재료)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문화차원에는 한국사회·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조기적응 실태, 사회적응력 비교·상관 등이 포함되었다.

<표 7>과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이병철 외(2011)에 의해 학교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2021년까지 사회·문화차원이 가장 많은 53.8%, 학교

차원 25.6%, 개인차원 12.8%, 가족차원 7.7% 순이었다.

<표 7> 연도별 적응의 하위차원 연구 수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	%
적응차원	개인		2	1					1		1	5	12.8
	가족					1				2		3	7.7
	학교	1	1		3			2	1	1	1	10	25.6
	사회·문화		3	4			2	2	7	1	1	1	21

특히 사회·문화차원은 2012년, 3건(김민정, 김선희; 김영순 외; 양미진 외)을 시작으로 2013년 4건(박봉수 외; 박선웅 외; 엄명용; 한은진), 2016년 2건(박성욱; 조형숙), 2017년 2건(남부현 외; 박미정), 2018년 7건(권구택a; 권구택b; 김미강; 김미강, 김영주; 남부현 외, 윙티탄프영 외; 조형숙), 2019년 1건(김수영 외), 2020년 1건(전경숙), 2021년 1건(서은주)으로 총 21건이 있었다. 학교차원은 2011년 1건(이병철 외), 2012년 1건(류방란, 오성배), 2014년 3건(김민아 외; 신영권; 이유신), 2017년 2건(권보근 외; 이형하), 2018년 1건(정세진 외), 2020년 1건(남미연 외), 2021년 1건(이양금 외)으로 총 10건이 있었다. 한편 개인차원은 2012년 2건(양계민 외; 조혜영), 2014년 1건(좌동훈), 2019년 1건(김송설), 2021년 1건(김화영 외)으로 총 5건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차원은 2015년 1건(석희정 외)으로 부진하였으나, 2020년 2건(김민경; 최영미 외)이 추가되어 총 3건이 있었다. 특히 가족차원은 위 4개 차원 중 가장 적은 수의 연구가 있었으나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을 위해 가족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부각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현재를 파악하고 추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39건의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현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분석 결과, 2020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이 제안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 중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는 쉽게 찾을 수 있었으나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오히려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가 포함된 연구가 총 11건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학계의 인식을 반영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주 및 정의에 대한 재고를 구한다.

둘째, 연구결과, 연구대상이 중도입국 청소년에서 국내 일반청소년과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확장

되고, 주변인으로 부모와 교사 등을 포함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적응'은 본인의 변화는 물론이고 환경의 변화 또한 요구되는 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대상은 의미있는 주변인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족 적응에 관련된 주요 인물은 한국인 계부와 확대가족의 영향력이 친모(親母)보다 더 크게 작용하였다(석희정 외, 2015: 30). 그러나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내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 중 부(父)의 참여(남부현 외, 2018; 박봉수 외, 2013; 엄명용, 2014: 총 4명)가 저조함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과 새롭게 구성된 확대가족의 참여를 찾을 수 없는 점은 더욱 아쉽다. 덧붙여 조혜영(2020: 96)은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부모의 지원이 부족한 경우, 이모나 삼촌 등 친지의 지원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따라서 이들이 새로운 부모 및 확대 가족과 긍정적 관계를 맺으며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도입국 청소년의 생태체계에 기반한 확대 가족 등의 자원을 알아보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연구내용의 분석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사회와 문화, 학교, 가정에 적응하기 위한 우선 과제는 한국어 습득이었다. 한편 인간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때 가장 창의적으로 사고하므로, 인류 번영을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소수 민족 언어가 보존되어야 한다(김영순 외, 2020:22).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창하게 모국어를 구사하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 정주민의 강점에 초점을 맞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중도입국 청소년이 속하는 학교에서 급우들 간에 협동학습하게 한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이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해당 학급의 급우는 해당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또래 영향력을 상기할 때, 기존의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교육과정 상의 학습 한국어 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학교 부적응(남미연 외, 2020) 해결을, 한국인가정 청소년은 역지사지(易地思之)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또래 학습 상담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동향을 탐색하며, 전 세계적인 다문화 사회화에서 한국 학계의 적응 정도를 알아 볼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다문화 사회화 초기에 단일민족 사상으로 인해 이주민의 모국어를 배제하고 한국어 교육에 함몰된 부분이 없지 않았다(박영진, 장인실, 2018: 228).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다르지 않았다. 이에 이주민을 단순 지원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재고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유형별 맞춤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1:304)에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 미진했던 동향분석이 진행되었다. 특히 2021년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조사에 맞추어 학계가 인식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유형, 성별, 연령대, 출신국 등을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학계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는다. 다만 이를 위해 '중도입국'과 '적응'을 검색어로 설정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이나 '다문화 청소년'에 포함되었을 관련 연구가 누락 될 수 있는 등 일부 제한이 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권구택a (2018). 적응유연성이 중도입국청소년의 긍정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5), 293-302.
- 권구택b (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검증, 인문사회21, 9(2), 25-36.
- 권보근, 장인실 (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적응 요인 연구: 다문화 예비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2), 51-73.
- 교육부a (2021). 2021년 교육기본통계, 교육통계과, 2021. 8. 26.
- 교육부b (2021).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기획보장과, 2021. 2.
- 김미강 (2018).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이 한국어 숙달도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학, (70), 29-57.
- 김미강, 김영주 (2018).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동기 불안 및 문화적응 간의 상관 관계연구, 이중언어학, (73), 1-28.
- 김민경 (2020).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재구성 과 부적응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0), 279-296.
- 김민아, 이재희, 라미영, 김기현 (2014). 서비스 제공자가 인식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 어려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9), 147-175.
- 김민정, 김선희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성인교육의 과제, Andragogy Today, 15(4), 113-147.
- 김송설 (2019). 중도입국학생의 언어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 다문화사회와교육연구, 40, 37-66.
- 김수민, 김영순 (2019).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의 국내연구동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6), 471-494.
- 김영순, 박봉수, 팜티헨짱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중심 재사회화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언어와 문화, 8(3), 37-63.
- 김영순, 박봉수, 임지혜, 김정희 (2020). 사할린 한인 한국어 교육자의 생애이야기, 서울: 한국문화사.
- 김은경, 김현주 (2017).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한 질적 연구동향: 국내 및 북미학술지게재논문분석

- (2003-2015), 상담학연구, 18(2), 245-270.
- 김태한, 전영욱 (2021).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한 청소년학 연구동향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8(1), 75-93.
- 김현민 (2021). 한국 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관한 기존 연구의 비판적 검토, 전국다문화학과 연합세미나 자료집, 115-129.
- 김화영, 하정희, 이은지, 이재연, 최기형, 이유경, 차경환 (2021). 한국거주 중도입국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사회적응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청소년학연구, 28(11), 113-144.
- 남미연, 오현주, 최광선 (2020). 중도입국 학생의 학습부적응 원인 분석-한중 초등수학 교육과정 비교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2), 21-55.
- 남부현, 김경준 (2018). 중도입국청소년초기적응과정에 관한 조선족 부모의 경험과 인식, 한국청소년연구, 29(2), 5-34.
- 남부현, 김지나 (2017).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경험연구, 지역과문화, 4(1), 63-90.
- 류방관, 오성배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0-50.
- 박미정 (2017). 중도입국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력 비교연구: 자아 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1(3), 51-64.
- 박봉수 (2013).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한국 사회 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봉수, 김영순, 최승은 (2013).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부모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1(2), 331-355.
- 박병금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 연구 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371-381.
- 박성옥 (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프로그램운영실태 사례 및 발전방안연구, 다문화교육연구, 9(3), 83-105.
- 박선웅, 우현정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인되기:중도입국학생의 적응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사회이론, (44), 211-256.
- 박언하 (2019).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연구 동향 분석(2010~2019), 인문사회 21, 10(2), 399-414.
- 박언하 (2020). 탈북 청소년 적응 관련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한국사회복지교육, 50, 53-73.
- 박영진, 장인실 (2018).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특성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1(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27-260.
- 박옥현 (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공동체의의식과 관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20). 2019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보도자료, 법무부(2019. 11. 25.).
- 서은주 (2021).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연구: 생태체계모델과 위계적다중회귀분석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3), 179-202.
- 석희정, 하춘광 (2015).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가족생활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31(0), 1-35.
- 신명희, 강소연, 김은경, 김정민, 노원경, 박성은, 서은희, 원영실, 황은영 (2011).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영권 (2014). 중도입국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언어재료 연구, 한국어교육, 25(3), 186-206.
- 엄명용 (2013).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 영향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42(0), 39-82.
- 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양미진, 고희월, 김영화, 이동훈 (2012).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주 후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3), 87-113.
- 오승환, 좌현숙 (2015).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학교사회복지, 32(0), 385-412.
- 오영섭 (2019).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아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 사례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갑정, 손환희 (2018).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에 대한 연구 동향분석, 문화예술과 교육연구, 13(3), 81-109.
- 윤희탄프영, 김기화 (2018).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주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7(4), 79-102.
- 이병철, 송다영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 이양금, 임진숙 (2021). 중도입국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인문사회21, 12(4), 453-468.
- 이유신, 김한성 (2014).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0), 263-282.
- 이정섭, 왕금미 (2021).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요인에 관한 동향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6), 49-77.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0).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착수, 보도자료, (2020. 9. 24.).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이학식, 임지훈 (2014). 사회과학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집현재.

- 이형하 (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분석: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5(12), 59-70.
- 전경숙 (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 고찰,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1(2), 3-25.
- 전경숙 (2020). 비제도권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후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 및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 *다문화콘텐츠연구*, 35, 253-291.
- 정세진, 윤희미, 정다영, 박설희 (2018).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 영향요인 연구: 개인, 가족, 다문화 배경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4(0), 23-50.
- 정하은 (2015).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연구의 동향분석: 학회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2001-2014), *다문화가족*, 10, 41-65.
- 정희정, 김소연 (2014).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 상담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4), 831-853.
- 조혜영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정 및 적응지원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4), 311-355.
- 조형숙 (2016).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625-645.
- 조형숙 (2018). 부산지역 학령기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지원방안 탐색,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2), 625-645.
- 좌동훈 (2014). 중도입국청소년의 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 87-126.
- 전정웅 (2017). *사회복지연구방법론*, 서울: 양서원.
- 최명미, 송영호 (2020).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초국가적 가족관계 및 새로운 관계구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72(4), 189-214.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회*, 61(1), 163-194.
- 한은진 (2013).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 과정과 유형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195-218.
- 행정안전부 (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표(2019년 11월 1일 기준). 2020. 10. 29.
- Berry, J. W.(1992).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a new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30.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2005). *Making human being human: Bioecological perspectives of human development*. Thousand Oaks, CA: Sage.

(2022년 1월 10일 접수)
1차 심사완료 : 2022년 2월 07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22년 2월 25일
3인 익명심사필